

# 제19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결과 보고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는 '00년 ASEAN+3 정상회의에서의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증진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환황해권 경제·기술협력 강화를 위하여 '01년 이후 매년 한·중·일 3국이 번갈아 개최

- 20년 간 6,882명(한국 1,853명·중국 2,558명·일본 2,461명·TCS 10명) 참가, 경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 그간 산학관 비즈니스포럼, 산업단지·특구협력포럼, 식품·관광포럼, 총장포럼, 물류포럼, 전체회의, 전시회 등 경제협력 사업 시행

\* 산학관 협력, 도시환경 개선, 철도·항만 복합물류, 전시회 개최, 산업단지개발, 공동연구, 인재육성 등 무역투자·산업기술교류·인재교류협력사업을 제안하고 실행

## 1. 제19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전체 개요

○ 일시 : 2021. 11. 16(화)

○ 장소 : 한·중·일 온라인 화상회의

- (韓) 서울특별시 롯데호텔 서울
- (中) 상무부(북경시), 장쑤성, 광둥성, 산둥성, 허베이성
- (日) 구마모토시, 구마모토성홀 ※개최국 : 일본

○ 참석 : 한국·중국·일본(큐슈)의 정부, 지자체, 경제단체,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411명(한국 82명, 일본 139명, 중국 188, TCS 2명)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충북, 충남, 경제단체(한일경제협회,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등),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82명

※ 환황해 지역 :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6시9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대구광역시·울산광역시·강원도·경상북도

【중국】 상무부, 지방 정부, 경제단체,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188명

※ 환황해 지역 : 산둥성, 랴오닝성, 허베이성, 장쑤성, 베이징시, 톈진시, 상하이시 (4성 3시)

【일본】 큐슈경제산업국, 지자체, 큐슈경제연합회, 큐슈경제국제화추진기구,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139명

※ 환황해 지역 : 후쿠오카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오이타현, 구마모토현, 미야자키현, (7현 3정령시) 가고시마현, 후쿠오카시·기타큐슈시·구마모토시

【TCS】 한중일삼국협력사무국 2명

○ 주최 및 주관

(韓)산업통상자원부 · 한일경제협회, (中)상무부, (日)경제산업성  
큐슈경산국 · 큐슈경제국제화추진기구 · 구마모토시

○ 회의 테마 : ‘사회과제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환황해 지역 경제교류 모델의 구축’ 및 ‘지역 간 교류의 촉진’

## 2. 주요 성과

□ 코로나19 사태 지속 및 불투명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한중일 환황해 지역의 교류 촉진과 경제발전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흔들림 없이 상호협력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

-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중일 3국의 협력 필요성이 확대

- “사회과제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환황해 지역 경제교류 모델 구축 및 지역 간 교류의 촉진”을 테마로, 3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

□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22년 1월 공식 발효를 앞두고, 한중일 삼국의 각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본·기술·인재 등의 지역 자원을 상호 보완하여, 지역 간 교류를 촉진하는데 기여함으로써, 한중일 경제공동체 형성의 기반을 구축

- 제1회 회의 개최당시인 2001년 대비 3국 무역규모는 약 4배 성장

\* '01년 약1,600억 달러 → '20년 약6,300억 달러(한중일 3국의 전세계 교역비중은 12%에서 20%로 증가)

- 한중일 환황해 지역의 발전과 경제교류 확산의 분위기 조성에 기여

□ 감염증 대응형 비즈니스, 환경·에너지, 지역 간 교류 등 분야에서 3국 지역 간 협력 및 기업 간 경제·기술 교류사례소개를 통해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지역 경제활성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

- 환황해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한 3국 협력방안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협력, 자기주도형 건강관리플랫폼 글로벌화 협력, 전기차 사용후 폐배터리 재활용 협력, 2022년 대구세계가스총회 개최협력 등을 제안

□ 차기회의(제20회 환황해 회의)는 한국 부산광역시에서 개최

### 3. 세부 내용

- 코로나19 지속, 보호무역, 인플레이션 우려 등 불투명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한중일의 각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본·기술·인재 등의 지역자원을 상호보완하여, 지역발전과 지역간 교류를 촉진하는데 기여**
  -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중일 3국의 협력 필요성이 확대
  - 실제로 한중일 3국간 역내교역량은 첫 회의가 개최된 2001년 1,638억 불 규모에서 2020년 6,306억불 규모로 4배 가까이 성장
  - 한중일 세 나라는 2020년 기준으로, 전세계 GDP의 25%(21.4조 달러)와 교역량의 20%(7조 달러), 세계인구의 20%(16.1억 명)를 차지하고 있어 세계경제에서의 비중과 역할이 매우 큰 편임
- 금번 회의시 ‘**감염증 대응형 비즈니스, 환경·에너지, 지역 간 교류**’ 분야에서 **한중일 지역교류 확대를 위한 3국 상호협력·제안사항으로서 총 14개의 협력사업을 제안**

구분	제 안 내 용
한국	① 팬데믹 이후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협력 ②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플랫폼의 한중일 3국 공조 ③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협력 ④ 메가 이벤트 유치를 통한 지역발전 전략 (가스산업 올림픽 2022세계가스 총회(대구), 2015 대구 세계물포럼) ⑤ 제20회 환황해회의 유치(부산), 2030년 부산 월드엑스포
중국	① 장쑤성-한국-일본간의 산업 서플라이 체인 구축 ② 에너지 구조변환 촉진을 통한 수소에너지의 미래창조 ③ 수입상품박람회 상품조달 및 하이엔드 협업 플랫폼 구축 ④ 허베이성 차오페이텐모델구의 동북아 경제협력
일본	① 감염증 대응 상품개발(감염증 대응) ② 자외선 조사장치(감염증 대응) ③ 플라스틱 머티리얼 재생사업에서의 AI로봇·IT기술활용 ④ 소각(연소) 재의 활용(환경·에너지) ⑤ 구마모토의 관광자원과 매력(지역간 교류)

### 3. 평가

- 이번 회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22년 1월 공식 발효를 앞두고 개최되는 3국 간 경제교류 회의로서, '한중일 경제공동체 형성'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였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매우 컸음
  - 한중일 환황해 지역은 단순히 지리적 인접성을 넘어 경제적으로도 떼려야 뗄 수 없는 공동운명체가 되고 있으며,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기반 구축에 기여
- 지방자치단체의 글로벌 이벤트 및 관광 자원 등의 홍보배너 설치 및 안내를 통해 사업 및 지역 알리기에 기여
- 코로나19 사태속에서도 지역간 협력이 중단되지 않도록 3국이 협력하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한데, 지역의 공감대 형성
  - 회원도시 확충 : (한국) 대구, 울산, 강원, 경북 (중국) 지린성, 광둥성 (일본) 야마구치현

### 4. 후속조치 및 향후 추진계획

- 실효성 있는 3국간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한중일 3국에서 제안한 과제에 대해 향후 3국간 구체적인 실행방안 협의 및 사업 실행
  - 3국 간 회의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등 실무진 협의
- 제20회 기념 회의(한국 개최)가 될 수 있도록, 그간 20년간의 평가와 환황해 중점 논의 분야에 대해 실무협의하여 차기 회의를 준비
- 환황해 회의는 환황해 연안지역에서의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것이므로, 지자체의 참여도를 높이는 프로그램으로 유도
  - 차기 개최지역인 부산광역시의 산업·지역 알리기 및 2030 부산 월드엑스포의 유치 홍보 등

## **<참고 1> 제19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주요 발표내용**

### **환황해경제·기술회의 주요 발표 내용(한국측)**

#### **□ 3국 대표 개회인사**

##### **○ 산업통상자원부 서가람 통상협력국장**

-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한중일 3국의 협력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강조
- 3국의 미래 경제협력 방향으로 ①내년 초 RCEP 발효를 통한 협력 범위 확대, ②친환경 에너지 분야 협력 추진, ③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활성화 등을 제시

##### **○ 경제산업성 규슈경제산업국 고토 유조(後藤 雄三) 국장**

- NEDO(신에너지산업기술개발기구 베이징 사무소 근무, 제11회 환황해 회의 참가(대전))
- 제 19회 회의는 첫 온라인 교류( '20년 한차례 연기), 플랫폼 지속
- 감염증 대응형 비즈니스, 환경·에너지, 지역간 교류 분야분야 논의, 사회적 과제해결 및 3국 교류 확대 기대

##### **○ 상무부 아주사 루오 샤오메이(罗晓梅)부사장**

- 환황해 회의에 대한 지방도시의 지지에 감사 표명, 3국 간 협력의 씨를 뿌리고 결실을 맺고 있음을 언급
- 상호이해 증진과 3국 우호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중)지린성, 광둥성 (일) 야마구치 (한) 지방도시로 확대되고 있음
- 첫 회의부터 참가, 어려움 함께 극복하면서 산업·공급면 우위 협력 기대, 지역간 협력이 코로나로 중단되지 않도록 지속적 노력

#### **□ 감염증 대응형 비즈니스 분야**

##### **○ 디지털이니셔티브 그룹 김형택 대표**

- 주제 : 팬데믹 이후 기업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전략변화
- 팬데믹 이후 고객의 소비트렌드는 언택트, 홈코노미, 본원적 가치 중시, 불안케어(CARE), 에고이즘(자기중심적) 경제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
- 이에 따른 영향으로 유통의 경우 온오프라인을 연계하는 옴니채널로 전환되고 있으며, 홈퍼니싱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화장품의 경우 색조화장품 대비 기능성, 기초화장품 판매가 늘어나고, 극장이용이 감소되면서 OTT시장이 성장하고, 전시, 공연, 교육방식이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됨
- 고객 소비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기업의 비즈니스모델도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되고 있음
- 크게는 비대면 방식으로 음식주문, 홈트레이닝을 제공하는 언택트 비즈니스, 기존 오프라인이나 중간도소매를 거치지 않고, 리브 커머스(Live Commerce), 구독서비스 등으로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D2C 비즈니스, 오프라인과 동일한 체험과 경험을 전달하는 가상체험 및 메타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몰입경험으로 전환되는 한국, 일본, 중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상호협력방안에 관한 시사점도출
- 한중일 3국 연계 방안
  - \* 디지털기반기술 및 비즈니스 정보교류, 메타버스 활용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공동 Biz 협업플랫폼구축

### ○ 엑서마인(주) 박승훈 대표

- 주제 : 동기부여를 통한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플랫폼 한중일 3국 공조방안
- 한중일 3국의 고령화와 저출산 심화
- 잘 사는 방법은 'Start Strong, Finish Strong'
- 가장 좋은 방법은 건강 수준을 인생의 끝까지 높이는 방법
- Dr. Cooper 박사의 건강비법 - 과학적인 운동
- 운동검사-맞춤운동처방-동기부여에 의한 지속적인 운동 실천
- AI와 사물인터넷에 의한 Digital Transformation에 의해 대중화 가능
- 엑서마인 서비스 플랫폼 소개
- 한중일 3국의 공조방안  
(제안) 1.플랫폼 공유 2.실증서비스 실시 3.세계 표준화주도  
(2022년 한중일 3국의 지방정부에서 각 1개 이상 실증서비스 실시 이후 확대)

### □ 환경·에너지분야

#### ○ (주)민테크 이재훈 상무이사

- 주제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진단기술 개발 동향 및 재사용 기술
-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사용, 재활용 시장 및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전기차 폐배터리의 경우 70~80%의 잔존용량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에너지저장장치(ESS)나 다른 배터리시스템 용도로 재사용이 가능
- 수명이 다하여 폐기할 경우 배터리 내 유가금속(예, 코발트, 구리, 니켈, 리튬 등)을 추출하여 다시 배터리 원재료로 사용하는 재활용이 가능
- 전기차 배터리의 재사용, 재활용을 위해서는 배터리 진단기술 개발이 필수
- 전기차 배터리는 한,중,일 3국이 전세계 시장 90% 이상 공급, 기술 및 산업 선도하고 있음
-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기술 및 실증 사례 등의 교류를 통해 산업화 촉진 기대 가능하며 한,중,일 3국 관련 산업 산학연 네트워크 공유
- 한/중/일 기술 교류를 통한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산업 글로벌 선도  
\* (제안) 1. 한/중/일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기업, 연구소 등 조사 2. 한/중/일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3.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산학연 네트워크 기술 교류

### □ 지역 간 교류 분야

#### ○ 대구광역시 세계가스총회지원단 이현모 단장

- 주제 : 메가 이벤트를 통한 지역발전 전략
- Mega event 유치를 통한 대구시의 전략산업 성공추진 사례
- 2015 대구세계물포럼 유치를 통한 물산업육성 프로젝트
- 2022 세계가스총회 유치를 통한 수소산업 유치 전략 사례
- 일본과 중국 기업체의 2022년 세계가스총회 참가 협조
- 중국과 한국의 수처리 기업간 합작기업 설립 협력
- 대구와 교류를 희망하는 도시는 「대구우호도시포럼」 참가 요청

## 환황해경제·기술회의 주요 발표 내용(중국측)

### □ 감염증 대응형 비즈니스 분야

#### ○ 장쑤성 상무청 쑤 진(孫 津) 부청장

- 주제 : 감염예방 관리 일상화 속에서의 장쑤성, 일본, 한국 간의 산업 서플라이체인 구축
- 한국은 장쑤성의 5위 투자국·4위 교역국, 일본은 3위 투자국·5위 교역국
- 같은 배를 타고 서로 도우면서 시대의 난관을 극복, 장쑤와 한일은 상호 협력하고 지원
- 중국(장쑤성)-한국-일본 3자 협력하여 원원관계 서플라이 체인 구축 제안
  - \* 무역·투자 자유화와 원활화 추진(RCEP 협정), 한일의 경제·무역기관과의 연계 강화, 프로젝트 중심의 양방향 경제·무역·투자 협력(이노베이션, 그린 저탄소, 산업단지) 등

### □ 환경·에너지분야

#### ○ 광둥성 광저우개발구투자촉진국 샤오징보(邵静波) 국장

- 주제 : 에너지 구조변환 촉진을 통한 베이에리어에서의 수소에너지의 미래 창조
- 광저우 개발구의 개요, 광둥성 광저우시의 수소 에너지 최신 상황
  - \* 현대자동차 수소연료전지시스템 프로젝트 : 2022년 후반 생산 개시 예정
- 2025년까지 30곳 이상의 수소충전소 건설, 1일 공급량 3만kg 목표
  - \* 수소자동차 실증실험(5천대), 수소에너지 산업규모(500억 위안), 탄소배출 감축량(50만톤)

### □ 지역 간 교류 분야

#### ○ 산둥성 상무청 루 웨이(呂 偉) 부청장

- 주제 : 한·일 수입상품 박람회 개최를 통한 한일 협력관계 확립의 새로운 플랫폼 구축
- RCEP 체결·수입품 박람회 개최를 통한 상품조달·산업기술·투자촉진을 위한 협력 플랫폼
  - \* 2022년 수입품 박람회 개최(한-산둥 6월 웨이하이시, 일-산둥 6월 지난시)

#### ○ 허베이성 차오페이토텐모델구 관리위원회 리루종(李如忠) 부주임

- 주제 : 동북아가 협력하여 새로운 발전을 ~동북아지역 경제협력 추진에 힘을 보태는 차오페이토텐
-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일대일로' 전략의 동쪽 교두보, 세계적 대항만 입지로 비즈니스 최적화
- 주요산업의 최적화(파인스틸, 화학공업, 설비제조, 해상운송, 해수 이용, 석유 가스)
- 신흥산업의 강화(신소재, 신에너지, 정보·디지털 산업, 에너지 효율화, 환경보호, 신에너지 차량)

## 환황해경제·기술회의 주요 발표 내용(일본측)

### □ 감염증 대응형 비즈니스 분야

#### ○ 쿡고주식회사 타나카 토시히코(田中 稔彦) 대표이사 사장

- 주제 : 감염증에 대응한 상품개발에 대해
- 코로나 19 감염증에 대응하여, 원형 핸들식 이동 선반의 조작을 비접촉식으로 생산 (오피스, 도서관, 박물관, 창고 등 업무용 선반)

#### ○ 에어로실드주식회사 키하라 토시히코(木原 寿彦) 대표이사

- 주제 : 자외선 조사장치의 가능성에 대해
-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의한 경제손실 : 2020년도 GDP 증가율 -4.6%
- 자외선 조사 장치 에어로 실드 : 자외선 실내 상부 조사 방식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공간 제균 방법 (요양·복지시설, 유치원·어린이 집 등 도입)

□ 환경·에너지분야

○ 유가물회수협업조합 이시자카그룹 환경사업본부

이시자카 시게노리(石坂 繁典) 환경사업부장

- 주제 : 플라스틱 머티리얼 재생사업에서의 AI 로봇·IT 기술 활용에 대해
- AI 탑재 폐기물 자동 선별기, 폐기물 자동 투입 크레인, 컨테이너 부피 계측, 컨베이어 운방량 계측 시스템, 컨테이너 추적 시스템 소개

○ 주식회사후쿠오카건설합재 후쿠오카 다이조(福岡 大造) 대표이사 사장

- 주제 : 소각(연소) 재의 새로운 이용·활용기술 ~순환미의 창조에 대해~
- 소각(연소) 재 처리 사업으로 순환형 사회 실현, 연소 재 처리 사업의 CO2 감축 효과

□ 지역 간 교류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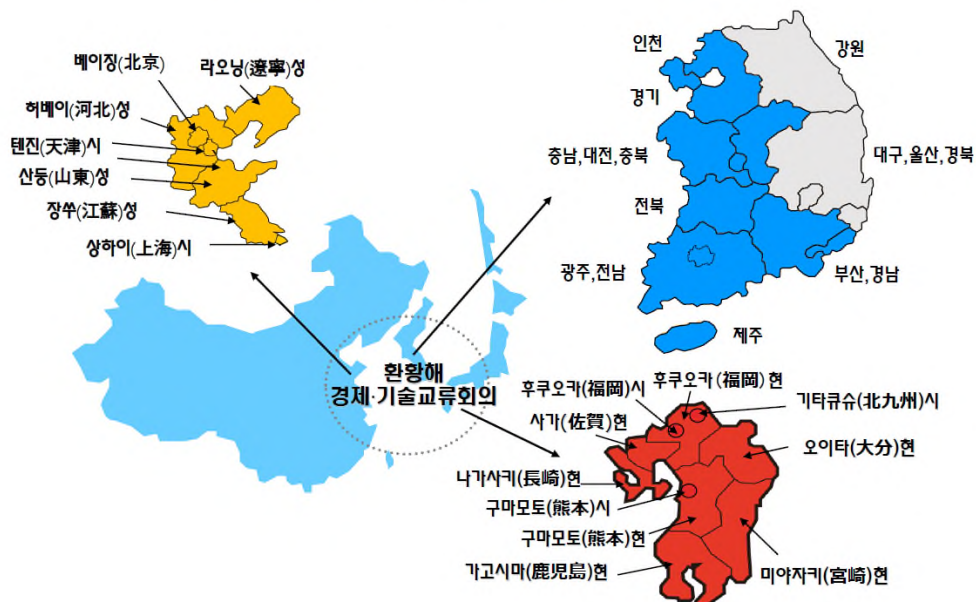
○ 구마모토시 경제관광국 타가미 세이코(田上 聖子) 경제관광국장

- 주제 : 구마모토시의 매력소개 ~풍부한 관광자원과 기업유치 노력~
- 구마모토시의 산업(운송용 기기, 생산용 기기, 반도체 관련 전자부품, 식료품 등), 기업 입지 지원, 관광자원(구마모토성, 온천, 음식) 등 소개



- **(배경)** ASEAN+3 정상회의('99년 필리핀, '00년 싱가포르)에서 한중일 3국 간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인식, 환황해권의 정기적 협력채널 구축에 합의
- **(목적)** 한중일 환황해권 경제교류 확대를 통해 3국간 무역·투자·산업 기술협력 증진을 도모하고, 동북아 자유무역권 구상의 기반을 구축
- **(현황)** 제1회('01.3월, 일본 후쿠오카) 개최 이래 한-중-일 順으로 순회 개최
  - 총 19회 개최, 총 참가자 6,882명(韓 1,853명, 中 2,558명, 日 2,461명, TCS 10명)

한·중·일 지역간 경제교류회의의 교류지역



- ▶ 한국(15개 시도) :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도 /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
- ▶ 중국(3시 4성) : 베이징시, 톈진시, 상하이시, 랴오닝성, 허베이성, 산둥성, 장쑤성
- ▶ 일본(큐슈지역 7개현 3정령시) : 후쿠오카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구마모토현, 오이타현, 미야자키현, 가고시마현, 후쿠오카시, 기타큐슈시, 구마모토시

- **(성과)** 한중일 3국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자본·기술·인재 등 지역자원을 상호 보완하여 무역·투자·산업기술 교류확대와 지역 간 교류를 촉진
  - \* 한중일 3국간 역내교역량, '01년 1,638억불에서 '20년 6,381억불로 약 3.9배 성장

## 1. 행사 개요

- **(주제)** ‘사회과제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환황해 지역 경제교류 모델의 구축’과 ‘지역 간 교류의 촉진’
- **(일시/방식)** ‘21.11.16(화), 15:00~19:00 / 한중일 온라인 화상회의  
 \* (韓) 서울 롯데호텔 / (中) 상무부(북경시), 장쑤성, 광둥성, 산둥성, 허베이성 /  
 (日) 구마모토시 구마모토성홀 호텔
- **(주최·주관)** (韓)산업부·한일경제협회, (中)상무부, (日)경제산업성 큐슈경산국·큐슈경제국제화추진기구·구마모토시
- **(참석자)** 3국 정부, 지자체, 경제단체, 기업인 등 411명
  - (韓) 서가람 통상협력국장, 서석송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 (中) 루오샤오메이(罗晓梅) 상무부 아주사 부사장
  - (日) 고토 유조(後藤雄三) 큐슈경산국장,  
 쿠라토미 스미오(倉富純男) 큐슈경제국제화추진기구 회장

## 2.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5:00~15:02	개회 선언	큐슈경제산업국
15:02~15:30	3국 대표인사·개최지 인사	(韓) 산업부 통상협력국장 (日) 큐슈경제산업국장, 구마모토시장 (中) 중국 상무부 아주사 부사장 (내빈)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사무차장
15:30~16:50	(세션1) 감염증 대응형 비즈니스	(韓) 디지털이니셔티브그룹, 엑서마인 (日) 콩고주식회사, 에어로쉴드주식회사 (中) 장쑤성 상무청
16:50~17:45	(세션2) 환경·에너지	(韓) 민테크 (日) 유가물회수협업조합, 후쿠오카 건설합재 (中) 광둥성 광저우개발구투자촉진군
17:45~18:40	(세션3) 지역 간 교류	(韓) 대구시 세계가스총회지원단 (日) 구마모토시 경제관광국 (中) 산둥성 상무청, 허베이성 차오펬이텐모델
18:40~18:47	차기 개최지 소개	(韓) 부산광역시
18:47~19:00	전체 총괄 및 폐회인사	

## 〈참고 2〉 제19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보도자료 모음

(연합뉴스)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개최...한중일 경제협력 모색 | 연합뉴스 \(yna.co.kr\)](http://yna.co.kr)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개최...한중일 경제협력 모색**



산업부, 한중일 공동으로 온라인 회의 개최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9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에서 서가람 산업부 통상협력국장이 온라인으로 대표인사를 하고 있다.

한중일 3국 간 열린 이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2021.11.16 [scape@yna.co.kr](mailto:scape@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한중일 3국이 맞닿은 환황해 지역의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일본 규슈경제산업국, 중국 상무부와 '제19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를 개최했다.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는 환황해 지역을 중심으로 한중일 3국 간 경제교류를 활성화하고 무역·투자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2001년부터 열려온 행사다.



한중일 공동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개최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9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일본대표의 인사말을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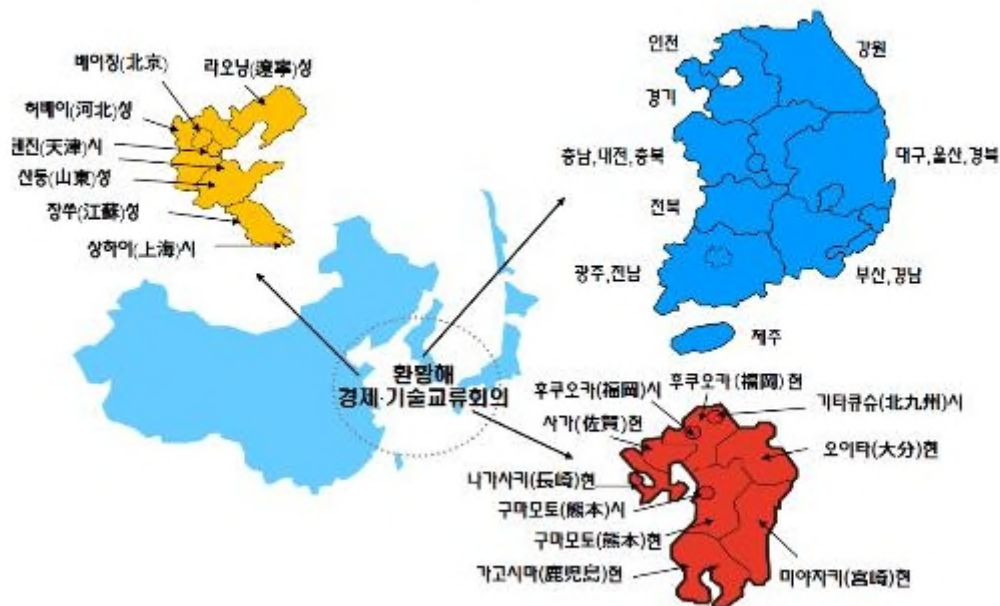
한중일 3국 간 열린 이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2021.11.16 [scape@yna.co.kr](http://scape@yna.co.kr)

이번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최초로 한중일 3국 간 온라인 연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정부·지자체·유관기관 관계자, 기업인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회과제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한중일 지역 경제교류 모델 구축 및 지역 간 교류 촉진'을 주제로 한중일 3국 간 다양한 경제·산업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감염증 대응형 비즈니스, 환경·에너지, 지역 간 교류 등과 관련해 3국 간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 한·중·일 지역간 경제교류회의 교류지역



한중일 한중일 경제·기술교류회의 교류지역

서가람 산업부 통상협력국장은 축사를 통해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로 한중일 3국의 협력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도록 지자체와 기업인 등이 적극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국의 미래 경제협력 방향으로 ▲ 내년 초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를 통한 협력 범위 확대 ▲ 친환경 에너지 분야 협력 추진 ▲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2021-11-16 11:00

<https://www.yna.co.kr/view/AKR20211116057400003?input=1195m>

연합뉴스 윤보라 기자 bryoon@yna.co.kr

(사진)

[온라인으로 열린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 연합뉴스 \(yna.co.kr\)](http://yna.co.kr)

온라인으로 열린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9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에서 서가람 산업부 통상협력국장이 온라인으로 대표인사를 하고 있다. 한중일 3국 간 열린 이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2021.11.16  
scape@yna.co.kr



## 산업부, 한중일 공동으로 온라인 회의 개최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9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에서 서가람 산업부 통상협력국장이 온라인으로 대표인사를 하고 있다. 한중일 3국 간 열린 이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2021.11.16  
scape@yna.co.kr

## 온라인으로 열린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9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일본대표의 인사말을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있다. 한중일 3국 간 열린 이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2021.11.16  
scape@yna.co.kr

## 온라인으로 열린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9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일본대표의 인사말을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있다. 한중일 3국 간 열린 이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2021.11.16  
scape@yna.co.kr

## 한중일 공동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개최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9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일본대표의 인사말을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있다. 한중일 3국 간 열린 이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2021.11.16  
scape@yna.co.kr

## 산업부, 한중일 공동으로 온라인 회의 개최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9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에서 서가람 산업부 통상협력국장이 온라인으로 대표인사를 하고 있다. 한중일 3국 간 열린 이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2021.11.16  
scape@yna.co.kr

## 산업부, 한중일 공동으로 온라인 회의 개최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9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에서 서가람 산업부 통상협력국장이 온라인으로 대표인사를 하고 있다. 한중일 3국 간 열린 이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2021.11.16  
scape@yna.co.kr



## 산업부, 한중일 공동으로 온라인 회의 개최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9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에서 서가람 산업부 통상협력국장이 온라인으로 대표인사를 하고 있다. 한중일 3국 간 열린 이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2021.11.16  
[scape@yna.co.kr](mailto:scape@yna.co.kr)

(뉴스시스)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개최... 한중일 경제협력 논의 :: 공감언론 뉴스시스통신사 :: \(newsis.com\)](https://newsis.com)

##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개최... 한중일 경제협력 논의

[세종=뉴스시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일본 큐슈경제산업국, 중국 상무부와 공동으로 '제19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세종=뉴스시스] 고은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일본 큐슈경제산업국, 중국 상무부와 공동으로 '제19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지난 2001년부터 환황해 지역을 중심으로 한·중·일 3국 간 경제 교류를 활성화 하고 무역·투자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열렸으며 올해로 19회째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최초로 한·중·일 3국 간 온라인 연결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부·지자체·유관기관 관계자, 기업인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사회 과제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환황해 지역 경제교류 모델 구축 및 지역 간 교류 촉진'을 주제로 한·중·일 3국 간 경제·산업 교류 방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감염증 대응형 비즈니스, 환경·에너지, 지역 간 교류 등과 관련해 3국 간 협력 및 기업 간 경제·기술 교류 사례 소개를 통해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서가람 통상협력국장은 축사에서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한·중·일 3국의 협력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3국의 미래 경제협력 방향으로 ▲내년 초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를 통한 협력 범위 확대 ▲친환경 에너지 분야 협력 추진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한·중·일 3국 간 오랜 신뢰와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 관계자, 기업인 등의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2021.11.16 11:00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116\\_0001652424&cID=10401&pID=10400](https://newsis.com/view/?id=NISX20211116_0001652424&cID=10401&pID=10400)

[세종=뉴스시스] 고은결 기자

## 한중일 오늘 '제19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개최

감염증 대응형 비즈니스, 환경·에너지, 지역 간 협력 등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일본 규슈경제산업국, 중국 상무부와 공동으로 '제19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를 이날 오후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는 환황해 지역을 중심으로 한중일 3국 간 경제교류를 활성화하고 무역·투자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2001년에 최초 개최되었으며 올해로 19회째를 맞는다.

이날 오후 3시에 시작하는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최초로 한중일 3국 간 온라인 연결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부·지자체·유관기관 관계자, 기업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한 다. 한국은 롯데호텔에서 약 100명이 참여한다.

회의에서는 '사회과제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환황해 지역 경제교류 모델 구축 및 지역 간 교류 촉진'을 주제로 한중일 3국 간 다양한 경제·산업 교류 방안이 논의된다.

회의 참석자들은 감염증 대응형 비즈니스, 환경·에너지, 지역 간 교류 등과 관련하여 3국 간 협력 및 기업 간 경제·기술 교류 사례 소개를 통해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 구축 방안을 모색 한다.

서가람 통상협력국장은 축사를 통해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한중일 3국의 협력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3국의 미래 경제협력 방향으로 △내년 초 RCEP 발효를 통한 협력 범위 확대 △친환경 에너지 분야 협력 추진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활성화 등을 제시하고, 지자체 관계자, 기업인 등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도 당부한다.

2021-11-16 11:00

<https://www.news1.kr/articles/?4493977>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yhji@news1.kr

## (데일리안)

산업부, 제19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개최 (dailian.co.kr)

### 산업부, 제19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개최

감염증 대응형 비즈니스, 환경·에너지, 지역 간 협력 등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일본 규슈경제산업국, 중국 상무부와 공동으로 '제19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를 개최했다.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는 환황해 지역을 중심으로 한중일 3국 간 경제교류를 활성화하고 무역·투자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2001년에 최초 개최됐으며 올해로 19회째를 맞았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최초로 한중일 3국 간 온라인 연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정부·지자체·유관기관 관계자, 기업인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사회과제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환황해 지역 경제교류 모델 구축 및 지역 간 교류 촉진'을 주제로 한중일 3국 간 다양한 경제·산업 교류 방안이 논의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감염증 대응형 비즈니스, 환경·에너지, 지역 간 교류 등과 관련하여 3국 간 협력 및 기업 간 경제·기술 교류 사례 소개를 통해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서가람 통상협력국장은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한중일 3국의 협력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3국의 미래 경제협력 방향으로 내년 초 RCEP 발효를 통한 협력 범위 확대, 친환경 에너지 분야 협력 추진,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활성화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1.16. 11:00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53312/?sc=Naver>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 (에너지데일리)

한중일 '제19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개최 - 에너지데일리 (energydaily.co.kr)

### 한중일 '제19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개최

감염증 대응형 비즈니스, 환경·에너지, 지역 간 협력 등 논의

[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6일 일본 규슈경제산업국, 중국 상무부와 공동으로 '제19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를 개최했다.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는 환황해 지역을 중심으로 한중일 3국 간 경제교류를 활성화하고 무역·투자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2001년에 최초 개최되었으며 올해로 19회째를 맞았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최초로 한중일 3국 간 온라인 연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정부·지자체·유관기관 관계자, 기업인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사회과제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환황해 지역 경제교류 모델 구축 및 지역 간 교류 촉진'을 주제로 한중일 3국 간 다양한 경제·산업 교류 방안이 논의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감염증 대응형 비즈니스, 환경·에너지, 지역 간 교류 등과 관련하여 3국 간 협력 및 기업 간 경제·기술 교류 사례 소개를 통해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서가람 통상협력국장은 축사를 통해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한중일 3국의 협력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3국의 미래 경제협력 방향으로 내년 초 RCEP 발효를 통한 협력 범위 확대, 친환경 에너지 분야 협력 추진,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활성화 등을 제시하고, 한중일 3국 간 오랜 신뢰와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 관계자, 기업인 등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2021.11.16. 11:00

<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240>

김규훈 기자 kghzang@energydaily.co.kr

(뉴스핌)

뉴스핌 - 한중일, 감염증 대응형 비즈니스·지역 간 협력 논의 (newspim.com)

## 한중일, 감염증 대응형 비즈니스·지역 간 협력 논의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개최 경제협력 새로운 도약 모색

기사입력 : 2021년11월16일 11:00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과 중국, 일본이 경제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기 위해 감염증 대응형 비즈니스, 환경·에너지, 지역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일본 규슈경제산업국, 중국 상무부와 공동으로 '제19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를 개최했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9.10.24 jsh@newspim.com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는 환황해 지역을 중심으로 한중일 3국 간 경제교류를 활성화하고 무역·투자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2001년에 최초 개최돼 올해로 19회째를 맞았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 최초로 한중일 3국 간 온라인 연결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부·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 관계자, 기업인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사회과제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환황해 지역 경제교류 모델 구축 및 지역 간 교류 촉진'을 주제로 한중일 3국 간 다양한 경제·산업 교류 방안이 논의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감염증 대응형 비즈니스, 환경·에너지, 지역 간 교류 등과 관련해 3국 간 협력 및 기업 간 경제·기술 교류 사례 소개를 통해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서가람 산업부 통상협력국장은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한중일 3국의 협력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3국의 미래 경제협력 방향으로 내년 초 RCEP 발효를 통한 협력 범위 확대, 친환경 에너지 분야 협력 추진,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활성화 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 2021년11월16일 11:00

임은석 기자 fedor01@newspim.com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1116000193>